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오기웅입니다.

먼저, 오늘 ‘중소기업 新 성장동력, AI 전환 확산정책 토론회’에 함께 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좌장을 맡아 주실 진병채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님, 발제를 준비해 주신 김주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님과 이영환 고려대학교 디지털혁신연구센터장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자리해 주신 토론자와 중소기업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나라 곳곳에서 AX 열풍이 뜨겁습니다. 정부는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AI 트랙을 신설하고, AX-스프린트 사업으로 중소제조업의 AX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AI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 현장에서 AI는 불량률 줄여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중소기업은 이러한 흐름에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대다수 중소기업은 의지가 있음에도 비용 부담, 전문인력 부족, 데이터 부족이라는 장벽에 부딪혀 AI 도입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산 현장에 AI를 적용한 중소 제조기업은 아직 1%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제는 중소기업에서도 AI 전환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업계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논의할 때입니다.

중소기업은 업종마다 생산 데이터, 필요한 AI 기술이 천차만별하게 다르면서, 업종별로 생산공정과 현장의 애로사항, Pain Point가 유사합니다. 이를 토대로 한 업종 단위의 공동형 접근이 개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AX를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올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진하고 있는 ‘식품 제조업’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처럼 AI 확산에 있어서도 각 업종의 특성에 맞는 지원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표준 AX 모델을 만들고, 실질적인 확산으로 이어지도록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업종의 구심점 역할을 맡고 있는 협동조합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협동조합은 조직적인 업종별 네트워크를 통해 공동으로 특화 AI 모델을 개발, 실증해 보급하는 AX 확산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AX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의 자체적인 역량 강화 노력 역시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중소기업 전반의 AI 확산을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전략과 정책과제에 대한 좋은 의견들이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현장 중심의 AX 정책 발굴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